

## 【 2016.09.19(월) 강원일보 】

알립니다

강원랜드와 함께하는 강원경제인페스티벌

### ‘창조경제’ 주인공을 초대합니다

9월22~23일 하이원호텔서 개최... 강원경제인상 시상

지역경제를 이끄는 경제인을 초대합니다. 창간 71년을 맞은 강원일보사와 하이원리조트는 9월22일부터 이틀간 정선 강원랜드 하이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6 강원경제인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는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에 수여하는 제10회 강원경제인상 시상식이 열립니다. 강원경제인상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을 선발, 7,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경제전문가와 다양한 분야의 명사가 참석해 지역 경제인들과 함께 강원경제를 진단하고,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는 2016 강원경제인포럼도 열립니다. 도내 중소기업인과 경제 유관기관, 자치단체 관계자들의 참여와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면에 계속

- 주최·주관 : 강원일보사·강원지방중소기업청
- 후 원 : 강원도·정선군·하이원리조트

알립니다

### 2016 강원경제인페스티벌 - 1면에서 계속

- 22일(오후 3시)
  - ◇ 강원경제인상 시상식
  - △ 시상 부문
    - ▽ 창조기업상 = 트로피 및 상금 3,000만원
    - ▽ 연구개발상 = 상패 및 상금 1,000만원
    - ▽ 건설혁신상 = 상패 및 상금 1,000만원
    - ▽ 창업성공상 = 상패 및 상금 1,000만원
    - ▽ 특 별 상 = 상패 및 상금 1,000만원
  - ◇ 2016 강원경제인포럼
    - 기초강연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
- 23일(오전 6시30분~오후 2시)
  - ◇ 조찬강연
  - ◇ 강원경제인 친선골프대회
    - △ 티오프 : 오전 6시30분
    - △ 장 소 : 하이원CC
  - 참가신청 : 강원일보사 홈페이지([www.kwnews.co.kr](http://www.kwnews.co.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bkk@kwnews.co.kr](mailto:bkk@kwnews.co.kr)) 또는 팩스((033)-252-5884)로 제출
  - 문 의 : 강원일보사 경제부((033)258-1340~2)

## 건설현장 원도급자 임금 지급 연대책임 추진

국회의원 17명 개정안 발의

건설현장의 체불임금을 막기 위해 원도급자도 임금지급에 연대책임을 지는 법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18일 정치권에 따

르면 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

설공사의 경우, 원도급자도 임금지불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현행법으로는 사실상 하도급 업체들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원도급자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법안이 개정·시행되면 앞으로는 원도급자도 임금체불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안은복 rio@kado.net

# 춘천 학곡지구 민자개발사업 '활기' 찾았다

춘천시는 "최근 학곡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설명회에 시공사와 금융권 등 16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낙후된 동남권 균형발전과 향후 주택수요 증가에 따른 택지 공급을 위해 동내면 학곡리 옛 시립화장장과 공설묘원 일대 32만6230㎡를 민간자본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2008년부터 공공청사 부지개발을 하려다 진척이 없어 공공편의시설 및 첨단 산업시설용지로 변경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지지부진해 최근 복합주거단지로 개발 방침을 정했다.

최근 사업설명회 시공사·금융권 16곳 대거 참여  
8년간 담보상태... 복합주거단지로 전환 후 '주목'

정확한 수요 예측이 부족해 마땅한 투자자가 없던 탓에 8년간 담보상태에 놓였다가 최근 레고랜드 등 도시개발이 급물살을 타면서 사업 추진에 과반불이 켜졌다.

이번 사업설명회에는 시행사 5개 업체, 시공사 8개 업체, 재무투자사 등 기타 3개 업체가 참가했다.

춘천시는 수도권 중견 시행사를 비롯해 1군 건설업체가 다수 참가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 공모는 오는 11월28일까지다.

특히 해당 용지는 중앙고속도로 입구이다. 시내 방향 국도 5호선과 46호선이 만나는 교통 요지다.

총 사업비 993억원 가운데 화장장, 분묘 이전, 사유지 매입 등에 405억원이 투입된 상태로 춘천도시공사를 통해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공모 자격은 관련법에 따라 최근 3년

평균 시공능력평가액이 1500억원 이상인 건설업체 1개사 이상이 포함된 2개 회사 이상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다.

춘천시는 사업설명회 참가 업체 가운데 3~4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계획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5월 1차 사업설명회 이후 중견 업체를 지속해서 찾아 개발방향과 사업성을 설명하는 활동을 벌였다"며 "민자공모에 많은 업체가 관심을 보인 만큼 개발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